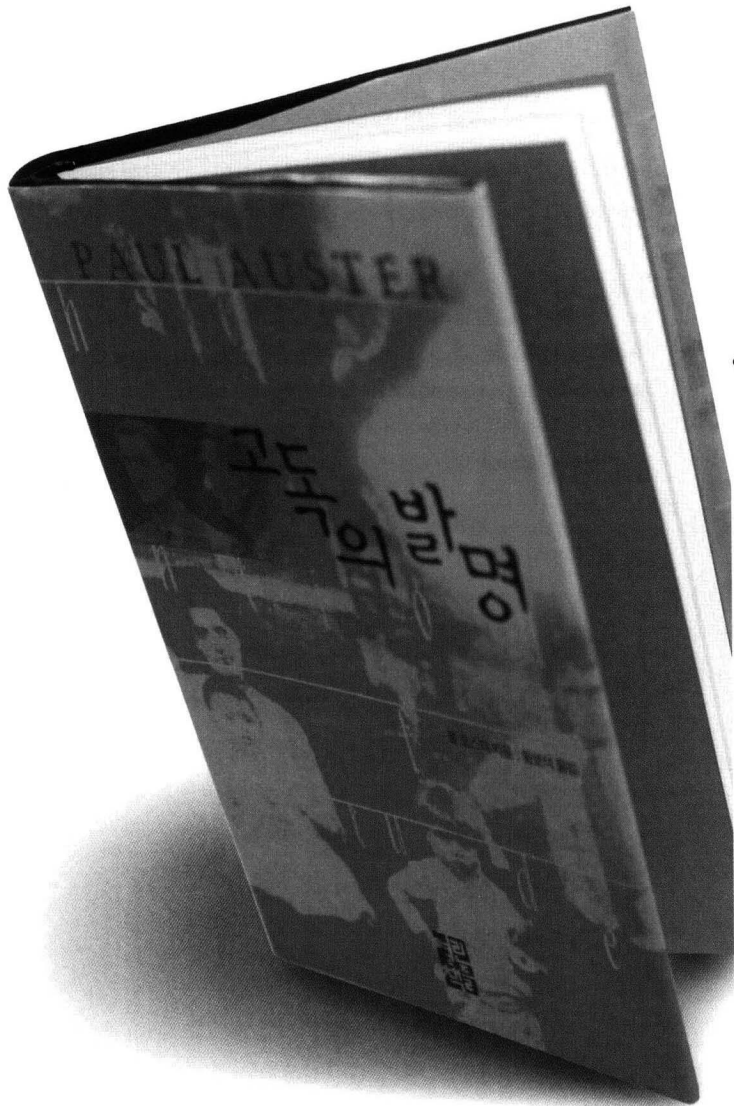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남자들의 고독



유대계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이민 3세 작가 폴 오스터가 삼십대 초반에 쓴 전작 에세이 《고독의 발명》은 밀폐된 공간에 갇힌 인간 개개인의 고독을 다룬 글로 읽힌다. 그들 중엔 <침실>이라는 자신의 작품에서처럼 모든 문이 폐쇄된 방에서 살았던 화가 고흐, 나치 치하의 암스테르담 다락방에 숨은 안네 프랑크, 사랑하는 연인이 죽은 뒤 무려 36년 동안 탑 속에서 살다가 시인 윌덜린, 고래 뱃속에 갇힌 요나, 상어 뱃속에 갇힌 피노키오의 아버지 제페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 뉴욕의 낡은 비좁은 방에서 이 글을 쓰는 작가 자신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면, 안개 속 풍경처럼 모든 이야기의 중심엔 작가의 아버지(샘)와 작가 자신(폴)과 작가의 아들(다니엘)로 구성된 삼대의 가족사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남자의 초상화'와 '기억의 서'라는 두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글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아버지는 이혼하면서 아내와 두 아이를 떠나보낸 뒤로 지금까지 줄곧 혼자서 그 집에서 살아왔다.

아버지는 사망 직전에 그동안 고집스레 지켜온 집을 판 상태였고, 그래서 작가는 여러 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안 물건들을 처분하며 숨가쁘게 보낸다. 지난 15년 사이에 아버지는 그 집을 완전히 버려 놓았다. 도저히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춥고 더럽고 낡은 집에서, 작가는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까지 주위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삶을 살다 갔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삶에 대한 어떠한 열정이나 의지와 갈망이 없는 삶, 늘 자신의 주변을 떠도는 국외자의 삶이었다. 그렇다면 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의문은 우연한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진다. 1919년에 위스콘신 주 케노셔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기사 복사본이 작가의 손에 전달된다.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지만 자녀들과 아내를 무시하고 모욕하며 살다가 결국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집에 들렀다가 아내의 총에 맞아 죽었다. 죽은 남자는 다름 아닌 폴 오스터의 할아버지(해리 오스터)였으며 총을 쏜 여자는 할머니(안나)였다.

당시에 폴 오스터의 아버지 샘은 일곱 살이었고 다섯 남매 가운데

● 이 글을 쓴 원재길은 연세대 사학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인으로 활동하며 시집 <나는 눈물을 묻고 있는자들>을 썼고, 전작 장편소설 <검옷과 속옷>을 발표하여 소설가가 되었다. 장편 <모닥불을 밝히려> <적들의 사랑 이야기>, 소설집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 <달밤에 물래 만나다>, 시집 <나는 걷는다 물먹은 대지 위를> 등을 썼다.

막내였다. 살인이 벌어진 현장에 있었던 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로 그는 '남편을 살해한 미친 여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케노셔에서 달아난 어머니와 같이 전국 곳곳을 떠돌았다. 그리고 서른네 살 늦은 나이에 어머니 곁을 떠나서 한 여자와 결혼하여 풀을 낳았고, 뒤이어 부모의 애정 없는 결혼생활에 줄기차게 의문을 던지며 성장하여 결국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는 여동생을 낳았다. 폴 오스터는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지금에 어렵풋하게나마 아버지의 전 생애를 관류한 무관심과 고독의 근원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책에 실린 두 번째 글 '기억의 서'는 자연스럽게 작가 자신의 어린 아들 다니엘에게로 초점이 옮겨간다. 삼인칭 화법을 써서 '나'를 '그'로 표현한 이 글에서 비로소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로 시제가 바뀐다. 할아버지는 작가의 아버지 샘에게 존재하지 않는, 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샘 또한 자기 아들인 폴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아버지였다. 이러한 부성에 결핍 또는 부재의 가족 내력은 다시 한 번 되풀이될 위기에 놓인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작가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이다. 잠시 관계가 호전되어 재결합을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폐렴을 앓아 입원한 병원에서 아드레날린 주사액 때문에 흥분하여 날뛰는 세 살 난 아들을 간호하던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에서 모든 희망을 접는다. "나는 포기했어요. 더 이상은 저 아이를 다룰 수 없어요." 이런 태도는 작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전에 제각각 자기 자식들을 대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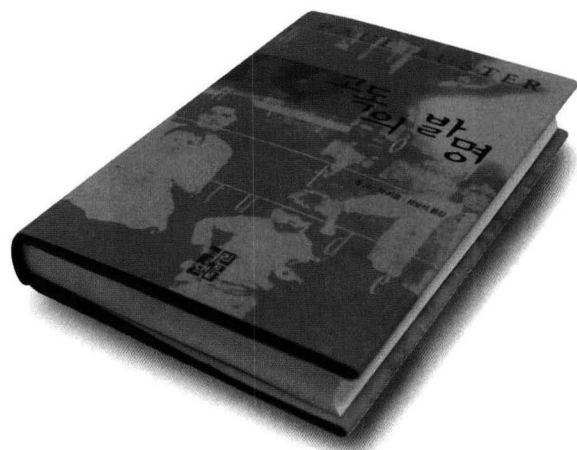
뒤이어 일견 평이하면서도 더없이 강렬한 진실을 담은 문장이 작가의 입에서 터져 나온다. "(내) 아들의 이미지, 그리고 단지 자기(내)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나 여자의 모든 아들, 모든 딸, 모든 아이의 이미지... 세상은 어린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나)는 생명이 태어나게 한 만큼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텅 빈 방에서 폴 오스터는 울기 시작한다.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일세. 나는 직시할 수가 없네"하고 탄식한 시인 말라르메를 떠올리고, 어린아이들이 대량 학살된 캄보디아를 떠올리면서, 언제든가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우연히 들른 안네 프랑크의 방에서 그러했듯이 두 뺨으로 눈물을 줄 줄 흘린다.

아버지의 고독, 밀폐된 방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고독, 그리고 그

들을 고독에 빠뜨린 세상의 무관심과 비정. 작가는 가족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무심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고독과 무관심의 세습과 반복에 진저리친다. 그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자기 자식에게 무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걸까? 그는 단호히 고개를 가로 젓는다. 불행이 대물림되는 순환고리를 끊는 역할을 스스로 맡겠다는 것이다.

나는 책을 덮기 전에 맨 앞에 실린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다. 뒤쪽에 보이는 멋진 목조주택에서 어느 날 저녁에 총소리가 울리기 오류년 전에, 작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 사진은 중간 오른쪽에 세로로 길게 찢었다가 붙인 흔적이 있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진에서 찢겨져 나갔다. 들쭉날쭉하고 거칠게 찢어진 흔적의 외침은 이런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은 가족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가족사진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한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 다음에 세상을 뜬 뒤에도 곳곳이 가족사진 속에 남아 있게 될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사진에서 찢겨져나가서 '보이지 않는 남자' 이자 애당초 존재한 적이 없는 남자로 처리될 아버지. ■



《고독의 발명》 폴 오스터 지음 | 황보석 옮김 | 열린책들 | 308쪽 | 값 8,500원